

보도시점

2023. 6. 1.(목) 11:00,
6. 2.(금) 조간

배포 2023. 6. 1.(목) 09:00

LMO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 등에 28억 원 지원

- 503호(양성 18, 음성 485) 농가에 23억, 28개 도매시장 등에 5억 원 지급
- 주키니호박 재배지 사후관리 강화 및 종자용 LMO 검정 확대 방안 마련 추진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 이하 종자원)은 지난 3월 발견된 미승인 유전자 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 주키니호박에 대하여 예비비를 확보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도매시장에 28억 원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세부 지원내역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호박 양성 농가 18호에 553백만 원, 음성 농가 485호에 1,703백만 원 등 503호 농가에 2,256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28개 도매시장과 양성 농가 폐기물 처리에 551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종자원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호박 재배지에 대하여 5월 농촌진흥청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주키니호박 재발생 여부 등 1차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재발생이 없었고, 6~7월 중 2차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안심 먹거리 관리를 위해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정 관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호박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정 확대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책임자	과 장	조경규 (054-912-0150)
		담당자	사무관	조용형 (054-912-0165)